

어린이 책꽂이

▲화가들의 천국 물랭 루주=난쟁이 화가 롤루즈 로트렉과 19세기 파리 풍경을 생생하게 전해 주는 예술만화 시리즈 3부작 가운데 첫 번째 책이다. 키가 작고 못생겼지만 '물랭루주'의 최고스타가 된 로트렉이 주인공이 되어 그곳에서 보낸 나날들과 예술가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려냈다. (아트북스·1만5천원)

▲누워있는 피카소=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어린이 시절 뮤머티즘 관점 염으로 중증장애인이 된 윤석인 수녀의 어린이 시집 이야기를 동화로 엮었다. 비록 두발로 걸을 수 없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장애를 이겨낸 윤 수녀의 이야기가 꿈과 희망을 안겨준다. (작은 새·8천원)

▲재미있는 법이야기=이 법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딱딱하고 어려운 법에 관한 지식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펴낸 법 교육도서. 법의 개념에서부터, 법률관계, 형벌제도, 국제법,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을 상식,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 등이 소개되었다. (가나출판사·8천500원)

▲지구아 아프지마=환경오염으로 병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우화와 그림으로 꾸민다. 공기, 물, 숲, 바다, 생물이란 다 갖가지 주제로 나눠 지구온난화, 감과 바다의 오염, 황폐해지는 숲, 동식물의 멸종 등을 다뤘다. (초록개구리·8천500원)

▲꼬물꼬물 역사이야기=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추리식 구성을 통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교양서. 역사속 단편적인 사실을 알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역사전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아울러 현재와 미래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뜨인돌 어린이·1만1천원)

# 긍정적 마음이 희망과 기적 만든다

## 마음 이영돈 지음

# 전 서울대학교 병원장인 한만청 박사는 1998년 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생존 가능성 5%.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지만 그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말한다. '암을 박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동거인으로 생각하면서 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 성교육 강연으로 유명한 구성에서는 초등학교 시절, 이웃집 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아픈 상처가 있다. 성인이 된 후 그녀는 그 오빠를 죽이려는 범행계획까지 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사건을 모를 리 없는 그 오빠의 아버지가 청소년 모임의 연사로 그녀를 초청했다. 성폭행범의 아버지를 만난 그녀는 거기서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는 부정(父情)을 발견했고 그 오빠를 이성적으로 '용서'하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삶은 안정을 찾았다.

지난 1월 방영돼 화제를 모았던 'KBS 특별 다큐멘터리-마음'은 8억원의 제작비와 1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만 알고 있던 '마음'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분석, 화제를 모았다.

담당 PD였던 이영돈 PD가 펴낸 '마음'은 다큐멘터리의 내용 뿐 아니라, 방송에 다 소개하지 못했던 다양한 자료까지 담은 '마음'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다. 이 책은 심리학, 정신분석학, 뇌과학, 신경학 등 과학을 이용해 마음을 분석하고 그 '마음'의 다스림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언급된 위의 두 이야기는 '마음'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책은 특히 진정한 마음의 컨트롤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명상 등 실천 방안까지 소개한다.

이 책의 장점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내용을 글로 풀어쓴 것이라 제작진을



## 마음은 나 자신을 지배하는 건강 키워드 과학적 분석통해 명상 실천방안 등 제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필자는 명상을 제안한다.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실험에 참여하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독자들이 생생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천재소년 송유근, '상상훈련'으로 암환자들을 치료한 의사의 이름을 딴 '사이몬톤 요법' 등 다양한 사례와 세계 석학들의 연구자료를 통해 마음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좋은 상상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무의식을 최대한 활용하라' '죄는 벌하고 인간은 용서하라' '긍정적인 마음이 희망과 기적을 만든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예담·1만9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우리역사 과학기행 문중앙 지음

# 근대과학 버리고 우리 역사를 보라



국보 제31호인 첨성대

'천하무적'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이 아니었다. 거북선은 임진왜란 당시 주력전함이었지만 관육선을 개량, 갑판에 투경을 뚫은 밀폐 구조였기 때문에 기성동이나 전투력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돌격선으로 적의 예봉을 꺾는 임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만든 것도 불과 3~4척에 그쳤다.

'찬란한 과학적 유산'으로 꼽히는 첨성대도 단순히 천체 현상을 관찰했던 천문대는 아니다. 고대사회의 천문의 성격은 현대 천문학에서와 같이 '객관적인 천체현상'을 관측하는 것과 확연히 달랐다.

'동사강목'은 '천문을 묻고(以候天文), 요사한 기운을 살렸다'고 첨성대의 용도를 적고 있다. 이를 통해 선현들이 '하늘의 뜻의 표상'을 관찰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상식을 뒤집는 이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해 당혹스러워할까. '우리역사 과학기행'(문중앙 교수)은 한국 전통과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근대 과학이라는 '필터'를 과감히 버릴 것을 권유



한다. 한국전통 과학의 패러다임과 서구 근대과학의 패러다임은 근원이 다르다. 즉, 패러다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과학적 개념이나 범주, 자연관이 사뭇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근대과학의 패러다임에 꼭박힌 사람이 한국의 전통과학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저자는 거북선, 첨성대, 훈민정음, 양부일구 등 18가지 주제를 선정해 각각 유물물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서구 과학이 유일되기 전 조상들의 과학적 연구와 사고를 통해 읽어낸다.

문중앙 교수는 "우리 과학 문화의 우수성과 원리를 근대과학의 눈으로 읽으려는 독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서양과학의 패러다임과 다른 전통과학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감상해보겠다는 자세로 이 책을 읽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시아·1만3천원)/윤영기기자 penfoot@

## 내인생 한편의 책

서 현의 '건축, 음악처럼 듣고'

그림을 그리는 여러 방법 중에 점묘화라는 게 있다. 그림물감을 팔레트나 캔버스 위에서 혼합하지 않고, 무수한 점으로 화면을 구성해 캔버스 위의 시각혼합을 이용, 필요한 색채나 형태를 얻는 방법이다. 무수한 점들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통일감으로 인해 훌륭한 그림이 탄생된다.

도시의 거대한 캔버스와 같다. 그 속의 건축물들은 무수한 점들과 같다. 우리의 도시가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가 되고, 명작·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건축의 점들이 도시라는 캔버스에 좋은 점들로 제대로 들어서고 관리 되어져야 한다.

건축은 그 당시의 시대정신과 인간의 삶을 담은 그릇이라 한다. 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손으로 하는 원시적인 방법에서부터 최첨단의 기술까지 동원되는, 우리 사회의 모든 속성과 문화가 스며있는 현상 그 자체다. 이런 건축물들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위환경 안팎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와 늘 함께 호흡을 한다. 이런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축물을 그냥 지나칠게 아리다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좋은 건물로만-

음악 감상이나 미술 감상처럼 건축을 즐길 수 있는 '건축 감

##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



상법'도 배워야 한다. 음악에 있어서는 조하하는 어휘를 이해하고 어떻게 듣는가를 배우고, 미술에 있어서는 작업하는 기법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처럼, 건축의 경우에도 어떻게 세워지고, 사람들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등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즐거움이 있다.

건축물을 즐기자 한다면 기회가 많다. 우리들의 주택에서, 쇼핑센터에서, 그리고 문화시설 등등, 우리 주위에 늘 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들이 있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의 2004년 개정판은 건축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감성적인 책이다. 시대적으로 위대한 건물이라든가, 특정 건물에 대한 평가 혹은 유명한 건축가의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읽는 이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건축을 음악, 미술 등과 비교 또는 비유하여 해석하기도 하고, 건축물에 담겨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 권위적인 의식, 남아편중의 문제와 건물이 표현하는 가치에 대해 분석하는 등, 건축물이나 디자인에 대해 인문학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책은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건축가의 고객인 건축주에게 또는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건축가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에게, 건축행정을 하는 공인들에게, 건물이용자 및 건축에 대한 인식과 지각을 높여 건축물을 감상코자 하는 사람들이 한번쯤은 접해보았으면 한다.

삶을 담은 그릇인 건축과 인문학의 영역에 가까운 건축문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대표)



**당선확신!!**

선거제도, 선거제도, 원로작성, 유세제도, TV토론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전화 02-636-6533-4  
117-603-6524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연우개발 행정관리사무소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전화 061-383-8283

**경동 전기보일러·온수기**

보일러+온수기(16평기준) 148만원

삼우상사

전화 0270-4242-232-8262-624-6262